

# 野 ‘황 탄핵’·‘새 특검법’ 카드 꺼냈지만...

## “靑 수색 방해 등 직권남용죄” 총리 탄핵 성사 가능성은 낮아 4야 추진 특검 연장 세 법안 정의장 직권상정 수용 ‘관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은 즉각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의 특검수용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 4당 원내대표는 재빨리 국회에서 회동 일정을 잡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에 공조하기로 했고, 야당이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백 번 탄핵해야 마땅하나,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중, 황대행 규탄대회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 대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바른정당을 제외하고도 야3당만으로도 166석을 확보할 수 있어 탄핵안의 결정적속수(150석)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헌법상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국무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야3당이 황교안 총리를 탄핵하려는 명분은 ‘직권 남용’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를 무력화 시켰다는 것만 가지고도 탄핵 소추를 발의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잠정적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을 방해한 점, 특검법의 제정 취지를 고대 해석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점이 모

두 위협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탄핵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월 2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3당의 원들이 탄핵안을 발의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더라도, 3월 3일~4일 사이에 본회의가 잡히지 않았기에 야당들끼리 표결을 할 수가 없다.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의 탄핵은 현재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세 야당이 초강수를 둔 것은 촛불 민심이 야권의 최대 지지층으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 황 권한대행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가 특검 무산을 방조했다는 비난 여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총리에 대한 야권의 탄핵 추진이 지나친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기대선을 앞두고서 거듭된 탄

# 민주 선거인단 100만명 돌파

12일간 하루 평균 7만명...주자들 전략 재점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 인원이 27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5일 모집 시작 이후 12일 만에 100만 명이 넘었으며 평일에는 하루 평균 7만 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5만 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이전인 1차 모집 기간에 200만 명을 돌파하고 탄핵 인용 이후 시작되는 2차 모집 기간에 250만 명 돌파에 이어 300만 명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인단 참여 열기는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뜨겁다. 2012년 대선 경선 때는 4주 동안 총 108만명이 등록하고 61만명(약 57%)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인단 참여 인원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자 각 후보 캠프에서는 특설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총 대표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예비 후보 캠프는 모두 “경선 판이 커질수록 유리하다”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캠프에서는 선거인단 규모가 커질수록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경

선에 대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을 한 게 사실”이라면서 “선거인단 규모가 커지면 ‘역선택’의 영향이 희석되고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와 흐름을 보기 때문에 결국 문 전 대표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는 안 지사와 이 시장 역시 선거인단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 캠프 대변인인 박승현 전 의원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분들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외연이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은 좌우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안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선 선거인단이 늘수록 안 지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지사 측에서는 규모가 커진다면 문 전 대표가 과반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결선투표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역전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선거인단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자발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높은 이 시장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번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황 대행 탄핵 법리 부족” 바른정당 탄핵 공조 불참

### 보수 민심도 부담 고민

바른정당이 27일 특검법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맹비난하면서도 정작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는데 까지는 공동보조를 취했지만, 황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를 놓고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오전 추호영 원내대표는 다른 야3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회동을 열고, 새 특검법 추진과 이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후 황영철 전략홍보본부장과 김용태 대선행단장·김세연 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장·오신환 대변인·박성주 의원 등과 내부 회의를 한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했다. 황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

힌 것이다.

이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탄핵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략홍보본부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황 총리의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민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 文은 ‘더문캠’·安은 ‘안희정 캠프’

### 캠프명·상징 이미지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선거캠프 이름을 ‘더문캠’으로 짓고 곰을 문 전 대표의 상징 이미지로 쓰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문 전 대표 측 예측석 홍보본부장과 홍보부본부장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캠프에서 브리핑하고 이같이 밝혔다.

“더문캠”은 21일부터 손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캠프’, ‘인재문캠프’ 등의 후보들과 댓글 투표를 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거캠프의 이름으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더’와 ‘더 강해진, 더 많이 준비된’ 등의 뜻이, ‘문’(Moon-달)에는 자신을 밝내는 별보다 남을 비추는 달이라는 뜻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곰을 문 전 대표의 상징으로 공개했다. 손 의원은 “‘문’ 자를 180도 뒤집으면 ‘곰’이 된다”며 “긴 씨슬 끝에 결국 이기고 마는 우직한 이미지의 곰을 승리를 상징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도 27일 경선 캠프명(名)으로 ‘안희정캠프’를 확정했다. 안 지사 측 박승현 대변인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저희 집 이름은 ‘안희정캠프’로 정했다”며 “본선에 진출할 시 사용할 명칭은 따로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안희정이라는 사람 자체, 안희정이 국민과 정치를 대하는 태도와 본질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안희정’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평가 2억3천 ▶ 최저가 14억9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평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평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게스트하우스 낙안읍성안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평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중고시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평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공장] 광주 서구 동천동 유촌마을 북서측 인근 토지 1,226㎡ 건물 323㎡ 감평가 12억1천7백만 ▶ 최저가 6억8천2백
- ★ [숙박시설] 전남 회선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토지 3,234㎡ 건물 4,281㎡ 감평가 37억8천7백 ▶ 최저가 9억9천2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천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옥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최적지 매매 37억

###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화부지 투자가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접)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천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층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